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진실한 믿음



마태오 제 12 주일

모세 예언자

성 바빌라 순교자

(제3조 • 조과 부활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3조 부활 찬양송 82

예언자 찬양송 84

성당 찬양송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186

사도경 : 1고린토 15,1~11 (봉독서220)

복음경 : 마태오 19,16~26 ... 11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느님에 대한 지식, 진실한 믿음에 대한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언제라도 그 모든 보물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자신을 도와주던 가까운 협조자들이 세상의 일에 유혹받아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정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 버렸습니다." (디모테오 후 4,10)

정통 신앙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부인하기보다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참된 믿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2022년 교회 년도 시작 메시지

새 로마-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며,
세계 총대주교인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스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와 자비가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 성직자들과 사
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느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교회 연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자연환경 보호의 날”을 기념하며 “위대한 창조의 선물”을 주신 만물의 창조주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대한 존중과 피조물 보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 정교회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선언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매우 좋은” 피조물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는 원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짐”임을 인식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또 진실로 해방시키는 힘을 가진 진리이신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용기있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3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는 다양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정교회의 환경 존중 메시지를 강조하며 역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9년 9월 1일은, 많은 열매를 맺은 운동의 시작을 영원히 의미하고 상징할 것입니다. 자연환경 파괴를 낳는 영적, 윤리적 근원과 여러 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고, 개인들과 기관들이 행동하도록 했고, 다른 기독교 세계에 영감을 주었고, 이 위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첫째, 인간이 피조세계에 대해 갖는 자유는 한

도를 넘어섰으니, 피조물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환경 파괴와 그 비극적 영향이 전세계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모든 이들이 공통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태 신학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귀중한 유산에 대해 많은 중요한 저술을 남기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수이자 학자인 페르가몬의 대주교 요한 대주교님의 연구와 저술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전문가와 과학자, 문화 및 영적 세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아홉 차례의 국제 수상 심포지엄의 발표문들 역시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들은 현 시대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환경 교육에 특히 유용합니다. 율게 언급된 대로, “미래에 생태적 지향이 없는 교육은, 교육을 그저 모방한 패러디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생태 균형을 확보하고 미래를 보증해주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가집니다. 그 조건이란, 생태 자원 사용의 절약, 농업 및 산업 생산 방식의 변화,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방식의 변화, 상품의 이동 및 운송 방법의 변화, 새로운 소비 방식 추구 등입니다. 불행히도, 선한 의도와 여러 가지 합의 및 선언문들은 종종 이론으로만 남아 있으며 “거창한 단어”로만 남은 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류는 기후 변화, 파괴적인 화재, 폭염, 홍수,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 대기과 바다의 오염, 삼림 벌채 및 환경 위기의 사회적 영향, 환경적 이유로 인한 대량 이주를 겪었지만, 이로부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자연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인간이 초래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연환경의 가장 큰 파괴가 과학과 경제가 지배하는 우리 시대에 일어났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대 기술 및 경제 중심의 문명이 진보를 낳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이 사실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무책임으로 인한, 또 인간의 무분별한 경제 활동으로 인한 거대한 파괴입니다. 피조세계가 온전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진보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올해 피조물 보호의 날 축일에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소리, 군사 폭력 희생자들의 울부짖음, 도시와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소리, 자연의 신음 소리와 난민들의 신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인도주의적, 생태학적 재앙입니다. 지속되는 폭력은, 수천 명의 인명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며 파괴합니다. 또, 국가들과 국민들이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과거처럼 환경에 비우호적인 방식을 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는 파괴적인 난관이라는 새로운 악순환에 진입하고, 이것은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 슬기로운 인간)가 동시에 호모 데멘스(homo demens: 비이성적인 인간)처럼 현명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과 축복받은 자녀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 세상의 요소들은, 한 신학적 공식에 따르면, “단순히 인간의 개별적 필요를 위해 소비하고 마는 실용적이거나 유용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여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분이신 창조주께서 만드신 ‘활동’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영원토록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늘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회가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왕국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으로 가는 길에서, 거룩한 교회는 인도자로서, 은총의 복음을 세상에 제공하고, 악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역사의 마지막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이 축복되고 풍요로운 새 교회연도를 맞이하시길 기원하며, 성인들 중 첫째 자리에 계시는 은총이 가득하신 테오토코스(중보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흠없는 믿음의 인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은총과 큰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2022년 9월 1일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주간 예배 안내

- * 9월 8일(목)
성모 탄생 축일
- * 9월 10일(토)
추석 추도식
(폴리바 준비하세요)
(서울성당은 성찬예배도 거행)
오전 9시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표지 사진 설명



게세마니 동산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위치한 해발 820m의 산이다. 구약성서는 “예루살렘을 동편으로 마주 보고 있는 올리브산”(즈가리아 14,4), “예루살렘 동쪽 산”(열왕기 상 11,7)이라고 불렀다.

게세마니는 이 올리브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이다. 예루살렘 성안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마르코 14,26) 그리고 “그들은 게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렀다.”(마르코 14,32) 예수님께서서는 이곳에서 깊은 고뇌에 싸여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셨다.(요한 18,1 이하)

게세마니 동산에는 오랜 세월의 연륜을 보여주는 여덟 그루의 올리브 나무(사진)가 있는데, 수령이 2000년이 넘었다고 전해진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히 지켜본 고목들이다.

소식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울산 성당 방문

지난 8월 27~28일(주말)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요한 보제가 방문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미래의 직업 선택에 관해 토론했고, 이어서 성당의 건축적 의미에 대해 배운 뒤, 대만과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성찬예배 후, 요한 보제의 중고등부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오찬 후에는 대주교와 교인들 모임이 있었으며,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성당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교회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별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041887-01-01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 고등부, 신데즈모스 가을 수련회

고등부와 신데즈모스의 가을 수련회가 9월 23일(금)~25일(일)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참석 여부를 9월 15일까지 각 지역 성당을 통해 대교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6만원입니다.

■ WCC 11차 총회 참석

세계교회협의회(WCC) 11차 총회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를 위해, 세계 총대주교청 대표단 일원으로 엘레니 조혜원 교우가, NCKK 대표단 일원으로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출국하였습니다. 총회를 통해 정교인의 증언을 전하고, 좋은 결실을 거두길 기원합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게 된 사람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 시리아의 성 이삭